

## 텍사스 기쁨의 교회

### 2022 년 2 월 오이코스 나눔

거룩함: 온전한 교제

레위기 1:1-9

새찬송가 50 장 (통합 71 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말씀과 나눔]

##### 1.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1 절)?

회막(會幕), 즉 '만남의 장막'에서 부르신다.

레위기는 '그리고'로 시작한다(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음).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속되는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다(출 40:34-38). 레위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바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회막(會幕)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인데, '오헬'은 '이동식 장막'을, '모에드'는 만남을 위해 정해진 장소(혹은 시간)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모세를 통해 예배와 관련된 규례들을 전해 듣는 '계시의 장소'이며, 공동체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이제 만남과 계시의 장소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민 2:17) 회막으로 바뀌고 있다.

##### 2.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2, 3 절)?

'살아 있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여기에서 '누구든지'(히, 아담)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음을 보여준다. 번제물의 조건은 두 가지다. '살아 있는 가축'이어야 하고,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생축(히, 빼헤마)은 야생동물(히, 하야)과 반대되는 것으로,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 염소를 가리킨다. 물론 가난한 자의 번제물인 '새'(14-17 절)는 예외다.

제물에 '흠 없음'은 '온전함'을 의미하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 당한 것, 저는 것, 종기나 습진 있는 것, 상처가 있는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고환이 상한 것 등은 '흠'으로 보았으며, 이런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다(22:22-24). 또 '수컷'은 암컷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 따라서 '흠 없는 수컷'은 제사법에서 '최고의 제물'을 지칭한다.

- **나눔 1**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제가 성숙함이 아닌 익숙함에 머물진 않는지요?

### 3. 가져온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번제물을 준비하는 일련의 일들은 누구의 몫입니까(4-9 절)?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자의 역할이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단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제사장과의 역할은 분명 구분되지만, 제사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그는 제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죽이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더러운 부위를 씻고 제물의 각을 떼었다. 반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

특히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보며 그는 죄에 대해 죽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처럼 제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제사의 주체가 단지 제사장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제물만 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야 했다. 솔로몬 성전 이후나 포로기 이후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일을 포함한 모든 제의를 전적으로 맡아 행했다(대하 29:22-24).

#### 4. 예배자가 번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4 절)?

제물을 잡기 전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

제의 절차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안수'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안수'는 단지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주어 몸을 기대는 행위'를 가리킨다. 안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수는 제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둘째, 안수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하나가 되고 '동일시'된다. 셋째, 안수는 안수 받는 대상이 안수하는 자를 대신하게 되고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 받는 대상에게 '전가'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자이고, 흠 없는 제물보다 제사자의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번제의 제사 방식과 목적은 무엇입니까(4, 9 절)?

- ① 방법(9 절) - 불로 태우는 화제(火祭)다.
- ② 목적(4,9 절) - 예배자의 봉헌(받으심)과 속죄를 위함이다.

번제의 방식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고, 목적은 예배자의 속죄를 통한 헌신에 있다. 화제(火祭)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법 중 하나다. 제사의 방법에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화제, 앞뒤로 흔들며 드리는 요제, 높이 들어 올려 드리는 거제,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전제 등이 있다.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것이 번제의 핵심이다. 이것은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번제에도 속죄제처럼 속죄의 효과가 나타난다.

'속죄가 된다'(4 절)는 것은 첫째 '덮개가 된다'는 뜻으로 죄를 완전히 덮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의미이고, 둘째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다'는 의미다. '향기롭다'는 말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죄로 인한 진노가 멈추고 이제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제의적 용어다.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속죄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헌신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속죄인 것이다.

- **나눔 2**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가죽과 피를 제외한 '모든 것'(전부)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헌신이 광신으로 호도되는 세상에서, 오늘 내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함께 기도]

사김의 은총으로 부르시는 주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나누기]